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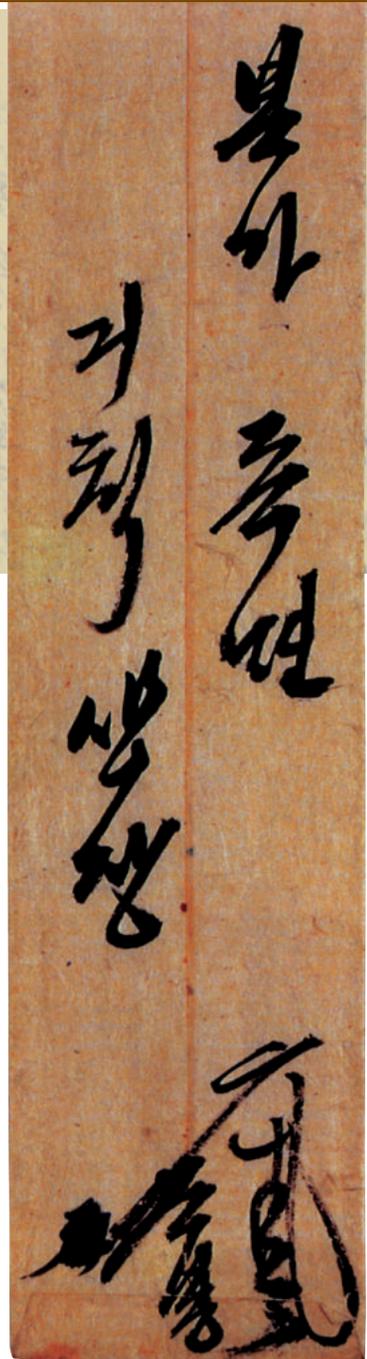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4년 가을 | 7호

특집 내간 | 박물관탐방 호림박물관을 찾아서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一分語
 전시실 산책 오리 날다 | 유물사랑 모성애 | 기증유물 사카이 토시아키·박성기 기증 갑주
 답사를 다녀와서 수천년의 역사가 공존하는 西安 | 강의를 들으며 고려자기의 숨소리
 특별전안내 한국 전통 매듭 | ICOM 소식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와 공연
 새 박물관 미리보기 |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九秋霜夜長
獨對燈火輕
低頭遙想鄉
隔窓聽雁聲

구쥬 서리 밤이 기러시니,
홀노 등잔꽃 가배아음을 대흐엿도다.
저두흐야 먼니 향을 싱각흐고,
창을 격흐야 기러기 우는 소래를 드럿더라.

<明溫公主>

山窓落木響
幾疊詩人愁
瘦月夢邊苦
殘燈爲誰留

피창의 나모 떨어지는 쇼래에
몇 첩이나 시흐는 사름의 근심인고,
파려흔 달이 꿈가의 외로와시니
쇠잔흔 등잔은 늘을 위흐여 머므럿는고.

<翼宗>

*명온공주와 익종(1809~1830)은 순조의 자녀들로 편지를 통해서 시를 짓고 서로 고쳐주었다. 국역도 그들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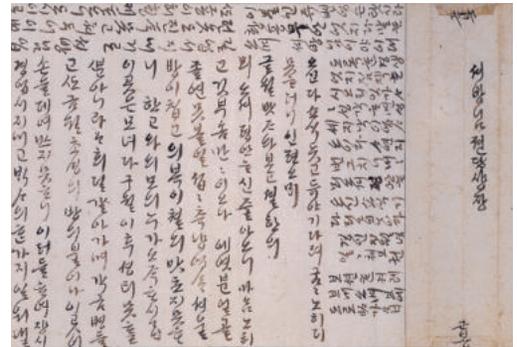
옛 여인들의 마음결

편지는 만나기 어렵고 만나는 것 말고는 달리 소통을 할 수 없었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거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을 포함한 일상의 생활이 그 때 쓰던 말씨와 글씨에 그대로 담겨있다. 그 뿐이라. 행간에 숨겨서 미처 다 드러내지 못한 미묘한 마음결까지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옛 편지를 읽는 일은 단순히 옛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불러오는 일이다.

옛 부녀자들이 써서 주고받거나 부녀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쓴 편지를 內簡이라 하는데 ‘내찰’ ‘안편지’라고도 한다. 또 ‘諺簡’ ‘諺札’이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유무’ ‘글발’이라고도 불렀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래로 궁중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언문서신은 성종 이후로 점차 양반가 부녀자에까지 확산되었다. 한글 편지는 편지글이 정형화되고 상투적인 표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반 서책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어체 표현이나 방언, 일상 언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한글은 한문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부녀자들과 남성들의 의사전달 수단으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문자였기 때문이다. 남성 식자층 간에는 한문편지가 주로 교환되었는데 비교적 공식적인 내용을 전하고 미세한 개인적 감정이나 사정보다 의견이나 정보 교환이 우선되었다. 이러하다 보니 사적이고 내밀한 사정을 담기에 쉬운 내간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부녀자들의 문 밖 출입이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이는 서로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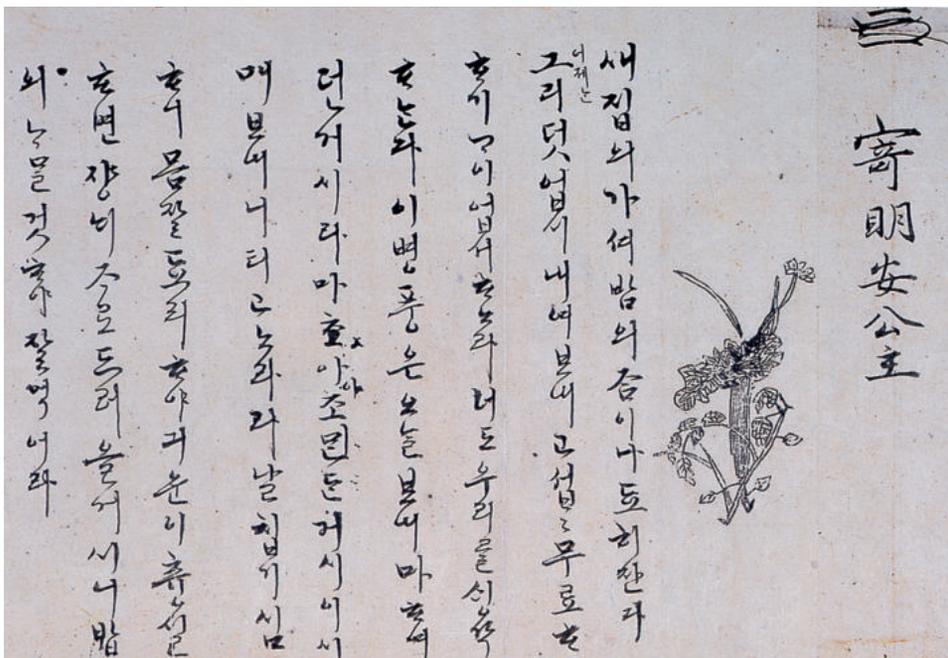
내간에는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밖에 위로나 부탁 등 살면서 부딪치는 모든 상황이

짧고도 간절하게 담겨져 있다. 내간의 문체가 간결체인 것은 특정한 사람사이의 왕래이기에 일반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축약과 생략이 빈번하며 거두절미 또한 자주 나타난다. 서민들의 내간에서는 전통적인 풍속과 마음 등이 담겨있는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일반 기록과 史書에는 담길 수 없는 역사와 민속학상의 자료가 많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반 私家에서 주고받은 내간이 남성들 간의 서신에 비해 보존되어 오는 수가 적다는 것이다.



유희 부인 권씨가 쓴 편지(1830년, 개인소장)

위낙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가다가 끝까지 쓴 뒤에는 다시 위에다 써 내려가 심한 경우에는 빙빙 돌려가면서 읽어야만 하는 편지들이 많다. 언어는 남녀노소와 지위에 관계없이 함부로 말을 놓지 않았다. 궁중에서 주고받은 내간에서는 높임법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남편이 아내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가족간에 철저하게 높임말을 쓰고 있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또한 지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종이 쓴 편지(17세기, 보물 1220호,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

궁중에서 오고간 내간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역사와 제도적인 여러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여염집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정도 맛볼 수 있다.

“새집에 가서 밤에 잠이나 잘 잤느냐? 어제는 그리 덧없이 내어 보내고 섭섭 무료하기 가이 없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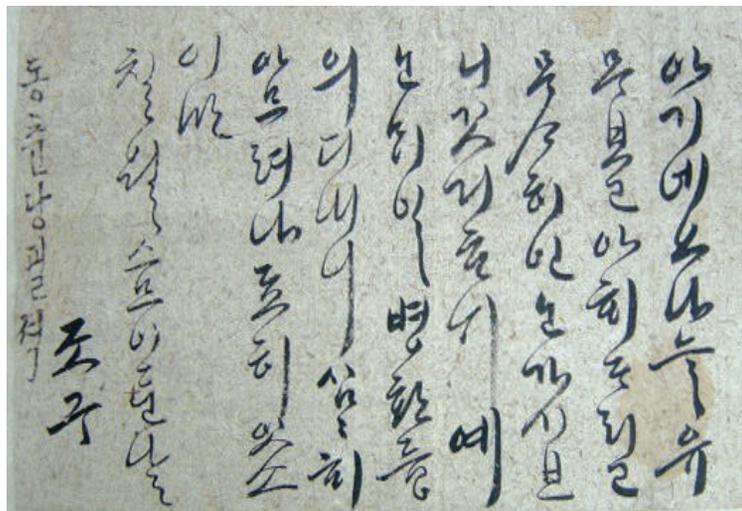
노라. 너도 우리를 생각하느냐. 이 병풍은 오늘 보내마 하였던 것이라. 마침 아주 만든 것이 있으며 보내니 치고 놓아라. 날 춥기 심하니 몸 잘 조리하여 기운이 충실하면 장래 자주 들어올 것이니 밥에 나물 것 하여 잘 먹어라.”

이는 顯宗(1641~1674)이 시집간 明安公主(?~1687)에게 보낸 편지로 왕이기에 앞서 한 아버지로서 딸에게 보내는 애뜻한 父情을 잘 보여준다.

問安紙에는 일반 문안지와 신부 문안지가 있다. 신부 문안지는 신부가 新行 前 시댁 어른들께 보내는 편지로 사연이 천편일률적으로 형식화된 틀에 맞추어 쓰면서 받는 이의 호칭만 바꾸어 보내졌다. 이에 대한 시댁 어른들의 답장은 새 사람에 대한 기대와 찬사로, 보지 못한 시댁에 친밀감을 품게 하여 새로운 생활에 희망과 안도감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안부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문안 편지와는 다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간의 안부, 시집살이 하는 딸과 친정부모의 간절한 내용, 출가해서 피차 만날 기약이 없는 자매간의 戀戀한 사연 등,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 편지이다. 그러므로 사연은 쓰는 이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며 개개인의 감정과 생활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아기네. 오나늘 유모 보고 아히 드리고
무스히 인느가 시브니 깃거하니. 예는 락일
병환들의 디내니 심히 아프려나 도히 잇소
이만 칠월 스펴 이튿날. 조구”

이 편지는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이 손자며느리에게 보낸 내간이다. 예학의 宗匠이라 불려온 대학자가 집안에서는 자상한 할아버지로서 孫婦를 ‘아기네’라고 정겹게 부른 것과 병중에도 증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특히 존대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나이 어린 손자며느리를



송준길이 쓴 편지 (17세기, 대전 선비박물관 소장)

대함에 있어 예를 다함이 보인다.

“...이제는 어떠한가? 어찌 나 있는 때나 그렇지 못한가 애답아 하네... 그것일랑은 근심 마소. 당신 죽으면 그것이나마 얻어 입을까? 그것으로 무슨 까닭으로 용심하시는가? 손이 그리 부어 있는데 버선은 기우셨는가? 나는 아주 뜻 없이 여기네...”

蔡無易(1537~1594)이 부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편지로 아내의 병환을 걱정하는 지아버의 애달픈 마음을 전하고 있다.

“...군자가 행실을 닦고 마음을 다스림은 성현의 밝은 가르침인데 어찌 아녀자를 위해 힘쓴 일이겠소. 또 중심이 이미 정해지면 물욕이 가리우기 어려운 것이니 자연 잡념이 없을 것인데 어찌 규중의 아녀자가 보은하기를 바라시오... 어찌 꼭 편지를 보내 공을 자랑해야만 알 일이겠소...”

柳希春(1513~1577)이 4개월간 독숙하면서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내 宋德峯에게 자랑하는 편지를 보내자 아내가 자신이 시부모를 봉양한 도리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자랑할 것 없음을 넌지시 또 당당하게 밝힌 답장의 일부분이다.

그 밖에도 査頓紙가 있는데 그중 인사돈끼리 내왕하는 편지를 ‘인사돈지’라고 한다. 서로가 부족한 자식들에 대한 인사치레 말과 친자식같이 여겨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다. 친척들 간의 婚姻, 得男, 壽宴 등을 맞아 별다른 형식 없이 경사를 축하드리는 인사 편지가 있으며 弔狀이나 慰狀은 슬픔을 함께 하고 위로하는 편지이다. 지금의 초대장과 같은 형식도 찾아볼 수 있다.

내간은 생활과 문화뿐 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당시에는 편지를 주고 받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더해져 상대방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커진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한 통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옛 사람들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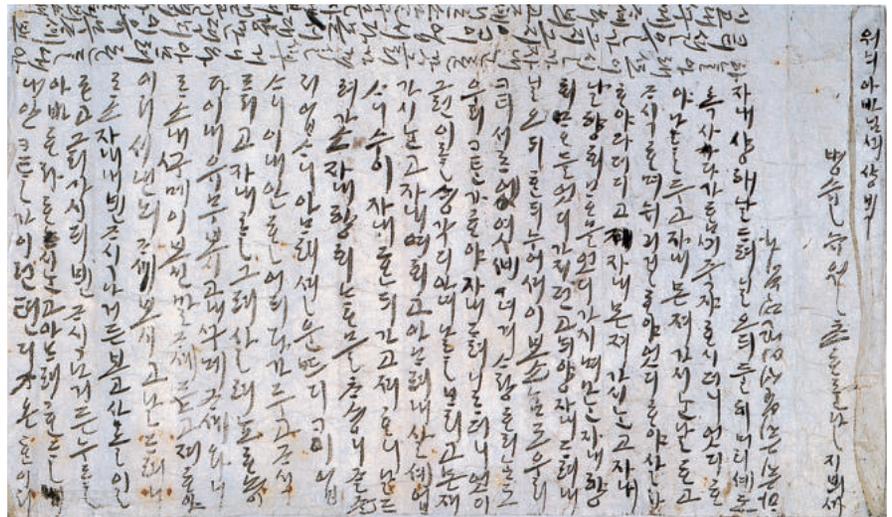
남도 우리같이 어여뻐 ...

치네를 쓰거나 장옷을 입고 얼굴만 조금 내민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교적 도덕규범에 속박되어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喜怒哀樂을 드러내지 않는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누군가 이러한 모습이 조선시대 여성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명쾌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장옷으로 가렸다 하더라도 그 마음까지 가릴 수는 없다. 마음은 언제나 높은 담을 넘어 늙으신 부모님이 계신 친정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에게, 시집간 딸에게 그리움으로 날아갔다. 장옷 속에 감춰진 마음을 활짝 열어 사랑으로, 다정함으로, 때론 투정으로 표현되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이 활발하고 자유스러우며 감정에 진솔하다는 것은 편지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 왔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와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은 한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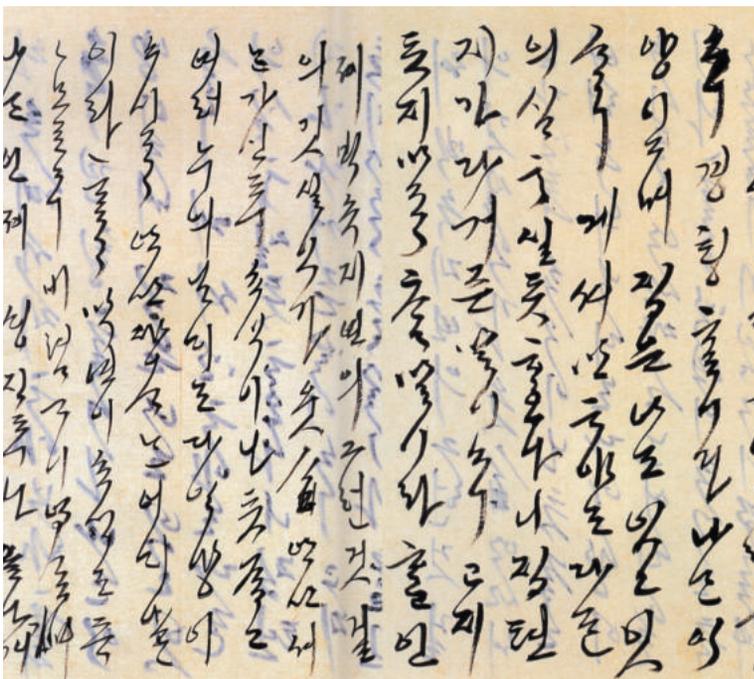
이렇게 절절하고 애뜻할 수 있을까. 읽는 이의 마음까지 저리게 하는 이 편지는 1586년 서른한 살에 죽은 남편 李應台를 기리며 그의 아내가 쓴 것이다.



이응태의 부인이 쓴 편지(1586년경, 이응태묘 출토,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400여 년 전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며 백발이 될 때까지 해로하고자 소망했던 이 부부의 육신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지난 세월동안에도 줄곧 함께였다. 시신 옆에서 편지와 함께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삼은 짚신이 발견되어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아직도 심금을 울린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던 夫婦의 사랑을 지켜온 것은 아내가 써서 남편의 가슴에 고이 품어준 마지막 편지였다. 당시로서는 힘든 애정 표현으로 둘 사이가 생전에 얼마나 애뜻했는지를 보여주는 한글편지의 白眉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젊은 시절에는 공부하러 집을 떠났고, 나이가 든 뒤에는 벼슬하러 집을 떠났다.



추사 김정희가 부인 이씨에게 보낸 편지(19세기, 개인소장)

이때 편지는 가족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편지에 자잘한 일상생활과 그리움을 써 보냈다. 玄風郭氏諺簡중 郭澍가 부인 河氏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남편의 심정이 잘 나타나있다.

“...종이에 쓴 약은 내가 가서 달여 줄 것이니 내가 가기 전에는 드시지 마소. 꿀과 참기름은 반 잔씩 한데 달여서 아이가 돈 후에 드시도록 하소. ...진실로 이 달이면 오늘 내일 내에 나올 것이니 시작하자마자 부디 부디 즉시즉시 사람을 보내소. ...비록 딸을 낳아도 절대로 마음에 서운히 여기지 마소. 자네 몸이 편안하면 아들이 아니어도 나는 관계치 않네...” 사랑방에서 책만 읽던 근엄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다. 男兒選好사

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출산을 앞두고 걱정스러움이 앞서고 있는 아내에게 지극한 사랑과 자상함으로 아내의 염려를 잠재우고 있다. 아마 아내 하씨는 따뜻한 보살핌으로 편안하게 출산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출산 습속을 알려주는 내용 또한 흥미롭다.

그러나 이렇듯 살가운 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金正禧의 많은 한글편지에는 부인을 그리는 것 외에 당대의 명기 죽향과의 염문을 잡아떼는 모습이 들어있다. “...나는 한결 같으며 집에서 떨어져 있으니 거기에서만 생각하면 의심할 듯 하오나 李室 편지가 다 거짓이오니 곧이듣지 마

시오. 참말이면 인제 늙은 나이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소. 웃습니다…” 아내를 달래는 모습에 은근히 웃음이 나온다. 투기를 할 수 없었던 많은 여성들이 마음에 안고 가슴앓이 하였을 것이다. 그 가슴앓이를 편지에 담아 보냈나보다. 김정희의 勞心焦思하는 모습을 보니 그 시대 여성들이 당당히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었음에 마음 한 칸이 상쾌해진다. 이런 편지가 우리에게 김정희를 한 인간으로서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

鄭澈의 어머니 安氏가 정철에게 보낸 편지에는 네가 편히 있어야 나도 편하고 궁궐도 다 평안하시다는 어머니의 따뜻한 모정과 걱정스런 마음이 배어있다. 높아진 아들에 대한 어려움을 존칭을 써서 예우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한 것이다.

16세기를 살았던 信川 康氏의 편지는 대부분 자녀에 대한 안부와 걱정으로 씌여 있다. 딸이나 며느리의 출산, 병으로 인해 밤새워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형들과 달리 공부를 소홀히 하고 무예를 배우러 다니는 막내아들을 걱정한다. 한편으로 딸에게 자신이 먹던 소주를 보내니 서러울 때 마시라고 당부하는 같은 여성으로의 안쓰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아침, 저녁으로 자식이나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지만 오래 살까 근심이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소홀한 자식에 대한 서

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아마 자식에게 쏟았던 사랑만큼 서러움과 외로움이 깊어갔을 것이다.

주변의 관료들 외에 어울릴 수 있는 벗이 없던 翼宗에게 세 명의 누이는 가장 가까운 詩友였다. 누이들에 대한 정이 유독 애뜻하여 사흘만 못 보아도 시를 보냈을 정도였다. “점심 잡수시고 안녕히 지내십니까. 이 글은 소인이 지어 보내니 감상하시고 어떠하온지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글씨를 보니 든든하며 이 글 五絶 지었기에 두어곳 고쳐 보내니 보아라. 低頭遙想鄉은 나를 생각함이니 지극히 감사하노라...” 明溫公主와 주고받은 편지로 특히 공주는 성품이 明敏하고 詩에도 능통하여 익종은 梅蘭女史라고 호를 지어 주기도 했다. 동기간에 주고받은 편지에는 감정을 표출하고 상대의 정서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배려와 애정이 녹아있다. 근엄한 왕가의 체통 속에서도 오누이간의 다정한 우애가 엿보인다.

메일과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는 지금 몇 백 년 전으로부터 날아온 옛사람들의 편지는 아련한 추억의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이 가을 어느 시인처럼 내가 처음으로 너를 좋아할 때의 설레임으로 따뜻함으로 편지를 써야겠다. 메일과 문자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늘 바쁜 남편과 아내에게, 소원했던 가족에게 계절의 향기를 듬뿍 담아 편지를 띄워봄은 어떨까. 답장을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과 함께 가을이 깊어가지 않을까. 

호림박물관을 찾아서

-분청사기 명품전-



분청사기 박지태극문 편병

우리의 유물 중 현대인의 심성에 가장 호소력 있는 유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파격적인 표현의 분청사기를 고를 것이다. 분청사기의 문양은 꽃과 물고기 등 자연을 나타냈으면서도 단순한 선

과 과감한 표현으로 5백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도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이런 분청사기전이 지금 서울 관악산 기슭에 위치한 湖林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호림박물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사립박물관으로 3천여 점의 토기와 4천여 점의 도자기 등 모두 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도자기와 토기의 소장품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다양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는다. 호림박물관은 설립자 尹韋燮 선생이 모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1999년 신림동에서 재개관하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아담한 박물관은 4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기획전

실, 야외전시장, 수장고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여러 단의 낮은 돌계단을 따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곳곳에 전시한 석물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10월 31일까지 열리는 분청사기 명품전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350여 점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분청사기, 자연으로의 회향 -하늘, 땅, 물-'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다. 분청사기는 조선이 새로 틀을 갖추던 시기인 15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만큼, 그 문양이 당시 사회의 움직임을 드러냈다고 보고 문양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전시이다. 먼저 기획전시실을 들어서면 입구에 세 점의 분청사기가 전시되어 있다. 마치 하늘과 땅의 아득한 지평선을 나타내는 듯한 덩벙문호, 그리고 물감

이 금방이라도 뚝하고 떨어질 듯한 艸花文의 잘생긴 扁瓶, 갑옷을 입은 듯 화려하고 날카로운 지느러미의 물고기가 그려진 병이 각각 하늘과 땅, 물을 나타낸다.

하늘을 나타내는 문양으로는 비가 퍼붓는 듯한 雨點文이나



분청사기 철화초문 편병

龍文이 많다. 또 거칠게 휘둘며 지나간 붓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귀얄문이나 백토물이 흐른 자국이 두텁게 남아있는 덩병문 등에서는 일진광풍이 몰아치는 듯한 바람결을 느낄 수 있어서 하늘을 표현한 것으로 분류하여 전시하고 있다. 주로 구름이나 학을 통해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늘을 표현하던 고려청자와는 달리 땅 쪽으로 가까이 내려온 하늘을 나타냈다는 것이 박물관 측의 설명이다. 특히 畵地기법으로 구름과 함께 태극문을 표현한 편병도 있어 성리학의 세계에 충실하려던 당시 주문자의 의도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땅의 문양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연 모란을 들 수 있다. 물론 모란문은 고려청자에도 자주 등장했으나 분청사기에서만큼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 주로 상감기법으로 표현된 모란은 당대 사람들이 염원했던 현실적인 소망인 부귀를 당당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붓으로 쓱 그린 듯한 초화문도 분청사기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이다. 어떤 풀인지 구별할 수는 없으나 땅에서 힘차게 솟아나 이리저리 마음대로 뻗친 생명력과 여기서 뿜어지는 원시적인 힘. 이것이 바로 분청사기에서 느껴지는 해방감과 아름다움의 실체이리라.

물고기와 연꽃 등은 물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물고기와 연 역시 청자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분청사기의 물고기는 청자에서처럼 조심스럽고 암전한 물고기들이 아니다. 한번의 붓질로 그려낸 듯한 물고기는 자유분방하며 꿈틀거리는 힘이 전해진다. 특 건드리면 지금이라도 지느러미를 탁 칠 것 같다. 또 국보로 지정된 蓮魚文편병은 연잎과 연봉

오리, 그 아래를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물새까지 여름 날 연못의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



분청사기 철화연어문 장군

상설전시실인 고고실에서는 다른 박물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토기들을 볼 수 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청동기 시대의 紅陶를 비롯하여 5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배모양 토기가 있는가 하면 사냥하는 사람과 쫓기는 동물, 그리고 창밖으로 이를 내다보는 사람의 토우가 달린 토기 器臺 등 보기 드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서화전적 실에는 고려시대의 초조대장경 사경을 비롯하여 李慶胤, 鄭敼, 金弘道의 그림과 李暉應의 석란도 등이 전시되어 있어 당대 최고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 느끼는 기쁨 중의 하나가 바로 시간을 뛰어넘는 생명력이라면 격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처럼 활달하게 표현한 분청사기는 아직도 살아 있는 듯하다. 5백년 전 조선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미적 감수성의 날을 버리게 하는 분청사기들. 이를 만들고 썼던 자유롭고 활달한 그 생명력이 지금 우리의 가슴 한 쪽에 이어져오고 있음을 박물관을 나서며 확신한다. **진**

一分語

이 태 준

十分心思一分語란, 품은 사랑은 가슴이 벅차진만 다 말 못 하는 情景를 가리킴인 듯하다. 이렇듯 다 말 못 하는 사정은 남녀간 情恨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표현이 모두 그렇지 않은가 느껴진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뜻을 세울 수가 없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꼼짝 못 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나는 문갑 위에 李朝 때 祭器 하나를 놓고 무시로 바라본다. 그리 오랜 것은 아니로되, 거미줄처럼 금간 틈틈이 옛 사람들의 생활의 때가 폭 배어 있다. 날카롭게 어여낸 여덥모의 굽이 우뚝 자리잡은 위에 얹고, 우긋하고, 매끄럽게 연잎처럼 자연스럽게 변두리가 활짝 피인 그릇이다. 고려자기 같은 비취빛을 얹게 띠었는데 그 맑음, 담수에서 자란 고기 같고 그 넓음, 하늘이 온통 내려앉아도 능히 다 담을 듯 싶다.

그리고 고요하다.



백자제기

가끔 옆에서 묻는 이가 있다. 그 그릇이 어디가 그리 좋으냐 함이다. 나는 터러 지금 쓴 것과 같이 修辭에 힘들여 설명해본다. 해보면 번번이 안 하니만 못 하게 부족하다. 내가 이 제기에 가진 정말 좋은을 십분지 일도 건드려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그럴싸한 齊
桓公과 어떤 老木手의 이야
기가 생각난다.

한번, 桓公이 堂上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庭下에서 수레
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
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
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올시다그려 한다. 工人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
꺼기될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自若
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저는 목수라 治木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보더라도 느리게 다리면
엇먹고 급하게 다리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
지도 않게 다리는 데 妙理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
들께서도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
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 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
옵니다.

환공이 무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說話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妙의 境地
의 것을 발표하는 器具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禪僧들의 不立文字說에 더욱 일깨워짐이 있다.

李泰俊 (1904 ~ ?) : 소설가, 수필가, 강원도 철원 출생.

1924년 渡日. 동경에서 처녀작 <오몽녀>를 집필하였으며 이것이 《조선문단》에 입선되었다.

단편집으로는 《달밤》《가마귀》가 있으며, 수필집으로는 《무서록》이 있다. 



백자제기



특설강좌를 듣기 시작하면서, 박물관을 드나든 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다.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어찌 갈수록 모르는 것만 늘어나는지... 그래도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찾아보던 시절보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또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낼 수 있게 된 요즘이 더 편한 것 같기도 하다. 전시실에서 눈길을 끄는 유물도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도자기 종류만 하더라도 처음엔 청자, 그 중에서도 화려한 문양의 상감청자가 발길을 멈추게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순청자가 눈에 들어왔다. 청화백자, 백자를 거쳐 닿은 곳은 토기. 붉은 빛의 투박한 빗살무늬토기부터 온갖 토우로 장식된 신라의 검은색 경질토기까지. 모양도 종류도 그야말로 다채로운 토기를 빛낸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까지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할까?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되고 싶어



지난 가을과 겨울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오리 날다’란 노래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박물관 진열장에 앉아 있을 오리형 토기가 떠올랐다. 원삼국실과 가야실에 있는 벗 달린 오리가. 지금은 닭에만 벗이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오리도 벗이 있지 않았을까? 원삼국실 오리의 벗이 가야실 오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다. 주로 낙동강 하류, 가야의 옛 땅에서 출토되는 오리형 토기는 등에 원통형 구멍이 있어 술 같은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례용 明器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한편으로는 꼬리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심지를 내어 불을 붙여서 등잔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재작년 여름, 오사카의 동양도자박물관에 들렀을 때 첫 번째 방에는 오직 오리형 토기 한 점만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도 고개를 치켜들고 보아야 할 정도로 높이 아무 장식도 없는 흰 벽에 높직한 선반이 있고 그 위에 달랑 앉아 있는 오리 한 마리. 등잔이었다. 그 등잔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빛이 방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광경이 절로 떠올랐다.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싣고 갈 명기든, 절대자에게 술을 담아 바치는 제기든, 어둠을 몰아내는 등잔이든 오리 모양의 토기에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의 바람이 깃들여 있는 게 아닐까? 하늘로 상징되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고 싶은 바람이...

노래의 주인공인 집오리는 가축화되면서 잃어버린, 하늘 높이 나는 능력을 되찾으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주변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 애쓰는 모습이 아름답다. 웬지 일상이 힘겨워지는 날, 꽃향기 따라 가고 싶어지는 날에는 오리형 토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마음만이라도 훨훨 날아가 보면 어떨까. **M**

母性愛

-申漢枰의 〈慈母育兒〉

불교의 父母恩重經까지는 아니어도 나이 들수록 가슴에 새록새록 다가오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아닌가 싶다. 몸소 자신들이 아이를 낳아 키워보기 전까지는 한 생명을 제대로 잘 성장시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인지를 짐작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간접 경험으로는 결코 안되며 직접 겪어야 비로소 그것도 조금 느낄 뿐이다. 스스로 저 잘나서 그리 큰 줄 아나 어린 녀석 때문에 설친 밤잠이며, 가슴 조인 순간들은 부모가 되어서야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당돌하고 철부지였던가를 깨닫게 된다. 옛 사람들도 말했듯 이를 느낄 때면 이미 부모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심에 우리는 늦게 난 철을 탓하며 후회한다. 하지만 시위를 떠난 화살이나 출발한 버스처럼 소용이 없는 일이다. 단지 아래에 베푸는 내리사랑으로 해서 마음의 빛이 조금은 탕감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은 예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 어쩌면 이는 본능에 속하는 것이어서 우리 인간만이 아닌 생명체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그 표현 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뿐,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달라져도 사랑은 변함없다. 인류가 남긴 조형예술 가운데 주제의 측면에서 洋의 동서 구분 없이 사람에게 따뜻한 감동으로 다

가오는 것 가운데 하나로 아기를 안고 있거나 젖을 물린 장면을 들게 된다. 이는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체험한 따뜻한 어머니 품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독교 聖畫에 자주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대표적이다. 우리 옛 그림 가운데에도 西歐의 종교화에 필적하는 같은 주제의 그림이 있다.

먼저 동물을 소재로 한 것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宗室出身의 문인화가로 16세기 조선 화단에 있어 회화사적으로 분명한 족적을 남긴 李巖(1507-1569)의 강아지를 소재로 한 일련의 그림들이다. 특히 잘 알려진 <어미개와 강아지[母犬圖]>는 따뜻한 애정과 동화적인 분위기의 표출이 압권이다. 어미의 푸근한 눈매와 어미 품에 깃들여 열심히 젖꼭지에 매달리거나 단잠에 취한 강아지들의 천진스런 모습은 평화를 넘어 송고함마저 느껴진다. 이보다 400년 전에 고려 도공이 빚은 靑磁母子猿形硯滴은 수유 장면은 아니나 이에 뒤지지 않는 같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간송미술관에 있는 이 연적은 10cm 크기인데 감싸 안은 어미의 가슴과 볼을 만지는 새끼의 모습으로 이들 모자간의 정겨움이 우리들 가슴에 곧바로 전해진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1957년 미국을 필두로 1962년 유럽,

1976년 일본 등 그동안 국외에서 개최된 우리 문화재 전시
에 선정되어 출품되었다. 외국에서도 널리 사랑을 받은 명
품들이다. 이는 맑고 밝으며 어질고 너그러운 우리 민족성
에 뿌리를 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크게 구별되는
美感이 창출한 우리 미술의 독자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문헌을 살필 때 申潤福(1758?-18130이후)의 부친 申漢枏
(1735-1809이후)은 御眞 제작 참여 등 30년 넘는 도화서 화
원활동으로 아들보다 유명세가 더한 이름 난 화가임을 확
인하게 된다. 그의 유작은 몇 안되나 <이광사초상> <화조
도> 등 빼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수작들이다. 이 가운데 <자
모육아>는 우리 옛 그림 중 모성애를 가장 잘 드러낸 그림
으로 꼽게 된다. 배경 묘사 없이 인물만 등장하는 풍속화
범주의 그림이다. 이 그림과 같은 내용으로 보물 제 527호
인 '조선의 그림 신선[畫仙]'으로 지칭되는 金弘道(1745-
1806이후)의 대표

작으로 국립중앙
박물관의 『풍속화
첩』내의 <점심>,
金得臣(1754-1822)
이 1815년 그린 네
계절을 8폭에 담
은 호암미술관 소
장의 <行旅風俗屏>
의 제 3면 모내기,
그리고 1851년 화
원 馬君厚가 그린

간송미술관 소장 <村女採種> 등이 알려져 있다. 다만 이들
은 <자모육아>와 달리 일하는 논이나 밭 등 근로현장에서
짬을 내 젓먹이는 장면이다.

막내에 젓꼭지를 물린 몸 전체가 사랑임을 전해주는 어
머니의 인자한 모습,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겨 뽀로통 빠친
큰 아들, 동생들 보다 나이 위여서인지 복주머니를 가지고
홀로 놀 줄 아는 장녀, 유두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입에 힘
을 모으는 늦둥이 꼬맹이 등 세 자녀를 둔 가정임을 알려
준다. 상단에는 이들 세 자녀의 아버지로 그린 화가를 선
명히 알려주는 '逸齋'가 비교적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다
름 아닌 신윤복네 가족 전체가 등장된 가족사진인 셈이다.
봄별보다도 따사로운 어머니의 情은 온갖 나뭇잎이 조락
하고 찬바람 불어 소슬해 질 가을 무렵 가슴 깊이 더욱 사
무치게 다가온다. ㉗

2004년 가을 빛고을에서 漱巖



신한평 <자모육아> (간송미술관 소장, 종이에 담채 23.5x31cm)

사카이 토시아키·박성기 기증 갑주



장 상 훈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은 2002년 7월 일본인 사카이 토시아키씨와 박성기씨로부터 조선시대 후기의 甲 (갑옷과 투구) 1령을 수증하였다. 기증자 사카이 토시아키(坂井利明, 67세, 日本 群馬縣 山田郡 大間間町 竹と風の博物館 館長)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갑옷의 원 소장자인 사카이 토시아키씨가 기증을 결심하게 된 데는朴星奇(경기도 하남시 하남고등학교 교사)씨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는 일본 도쿄학예대학 일본연구 교원연구과정을 이수하던 중 사카이씨와 교분을 맺고 기증을 성사시켰다. 그에 따르면 사카이씨는 그의 소학교 동창생으로부터 이 갑주를 받았는데, 이는 그 동창생의 부친이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재직하던 시절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고 한다.

갑주는 전통시대의 전투에서 칼과 화살 그리고 창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방어 장비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갑옷은 皮甲과 頭釘甲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수증한 갑주는 가죽 미늘을 갑옷의 안쪽에 부착하여 만든 이른바 피갑으로 현존하는 유물이 많지 않아 조선시대 갑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증된 갑주는 연세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상화문피갑주와 형태나 구조면에서 비슷하다. 갑옷의 전체 길이는 105cm이며 너비는 97cm이다. 갑옷은 옷섶을 가슴 한 가운데에서 여미도록[습] 되어 있고 소매배래와 옆을 모두 뜯 割開式으로, 전투시의 활동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겹감은 황색 면직으로 앞 뒤 전체에 짙은 황색의 보상화당초문이 화려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안감은 청색 면직으로 문양은 없다. 겹감의 대담한 무늬는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갑주외에는 다른 예가 없다.

갑옷 안감의 앞·뒷면에는 철이 발린 직사각형 가죽미늘[片札]이 連綴되어 있다. 앞면에는 좌우 대칭으로 4~5개의 가죽미늘이 7단으로 각각 부착되어 배와 가슴부위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어깨 부위에도 2단으로 가죽미늘이 붙어 있다. 뒷면에는 8단으로 7~11개의 미늘이 부착되어 등 부위를 보호한다. 아울러 등의 어깨 좌우에는 미늘을 2단으로 6개씩 부착하여 방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방어효과에 대한 이러한 고려는 좌우 옷섶이 여머지는 합임처 슬기에 5개의 미늘을 배치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옷깃의 가운데 부분과 합임처, 그리고 소매배래 옆트임에는 단추가 달려 있어 갑옷을 착용한 뒤 잠그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어깨에 붙어 있는 肩鐵은 적이 칼로 착용자의 어깨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장방형의 철편을 3단으로 이어 만들어 착용자의 활동성을 높이고 있다.

투구에는 해가리개와 이마가리개가 붙어 있는데 이 위에 장식이 되어 있지는 않다. 목가리개의 겹감과 속감은 황색과 청색 면직으로 갑옷과 같다. 투구 목가리개의 겹감과 속감 속에도 가죽미늘이 부착되어 있어 방어효과를 높이고 있다. 鉢部(투구 본체)의 재질은 가죽이며 가죽 위로 흑칠이 되어 있다. 頂蓋部에는 반타원형의 蓋鐵 위에 철제의 軒柱 꽃이가 남아 있고 다른 장식물은 남아 있지 않다. 발부까지의 높이는 26cm이고 간주 꽃이까지의 높이는 4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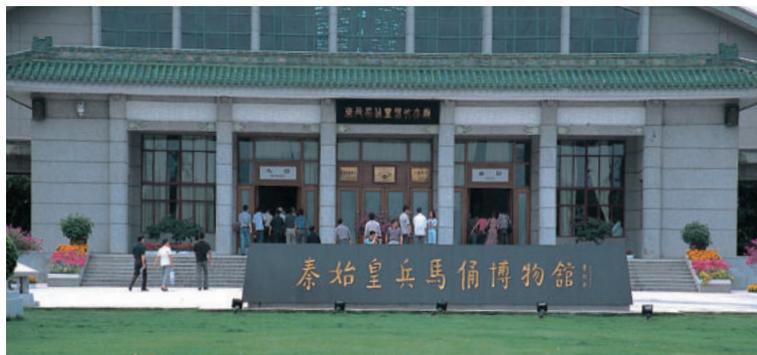
한편 이번 기증품이 다른 갑옷에 비해 돋보이는 것은 안감 뒷면에 ‘金致衡’으로 추정되는 墨書가 남아 있고, 미늘 한 조각에는 權命賢 과 朴宗後 라는 人名이 음각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묵서와 인명은 이 갑옷을 착용하였던 주인공을 시사하는 자료로 주목할 만하다. 비록 묵서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적외선 촬영사진으로도 인명을 분명히 해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미늘에 남아 있는 음각이 다소 조야한 점은 인정되나 이 갑옷이 지닌 사연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갑옷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파손부와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은 갑옷의 주인공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번에 수증한 갑주의 제작시기는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피갑주와 대체로 같은 18세기로 추정된다. 이번 수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시대 후기의 중요한 무구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수천년의 역사가 공존하는 西安

유영설 | 회원



西安의 외곽을 에두르고 흐르는 물이 黃河의 지류인 渭河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도 누렇게 보이더니 공항에서 차로 가면서 보니 정말 탁하기 이를데 없다. 강태공이 반평생을 낚시하며 때를 기다렸고, 張籍이 사랑하던 친구

元二를 安西로 보내며 눈물의 이별주를 권했던 渭河는 지금 논밭 사이로 흐르는 하나의 조그마한 강으로 변했다. 십 년에도 桑田碧海라는데 하물며 천년이 넘는 세월에서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번 황하유역 답사의 대상은 關中盆地의 중앙에 위치한 西安에서 洛陽과 鄭州까지 그야말로 中原의 유적들이다. 중국 역사 가운데 20여 개국이나 되는 많은 나라가 이 지역에 도읍을 정했으니 어찌면 이 나라 대부분의 역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사람들은 황하에서 나고, 황하를 마시며, 사랑하다가 황하로 돌아간다. 黃河를 빼고는 중국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강은 그들의 생명줄이고 하늘이 주는 혜택이며 삶의 터전이었으나, 반면 유사 이래로 수많은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다.

西安에는 曲江과 雁塔 등이 시내에 있고, 주변에 漢中, 潼關, 咸陽, 五丈原 등 三國志에 나오는 익숙한 곳들이 이웃하고 있다. 또한 가까이 秦始皇帝陵, 漢 武帝의 茂陵, 唐 高宗과 武 則天의 合葬陵인 乾陵 등 수많은 陵墓가 즐비하다. 天竺國으로 求道여행을 한 玄 스님의 유골과 新羅 圓測스님의 분골을 모신 興教寺, 大雁塔이 있는 慈恩寺와 小雁塔으로 유명한 薦福寺 등 名刹이 있다. 그리고 炎帝로부터 張良, 司馬遷, 諸葛亮의 자취가 시간을 달리한 채 尙存하고 있다.

秦始皇帝陵을 찾았다. 38년 간 축조하여 완공된 이 묘역은 높이 76m 둘레 2km로 남으로 驪山에 접하고 북으로 渭河에 닿아 있다. 지금 陵 동쪽에서 세 개의 兵馬俑坑이 발견되었고 서쪽에서 두 대의 구리마차가 발굴되었다. 兵馬俑博物館의 특

징은 원래 발굴된 그 자리에 건물을 지어 생생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1, 2, 3관의 반 가량은 발굴된 상태로 나머지는 원형대로 복구해 놓았다. 그 굉장한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완벽한 等身大의 兵俑들이 모두 다른 개성적인 표정을 짓고 일사불란하게 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잊었다. 俑 하나하나를 완성해서 옮겼느냐, 현장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項羽가 불을 질러 검게 된 것인지, 혹은 위에 나무를 쌓고 후에 불을 질러 高熱에서 燒成된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직 없다.

영생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니 누구누구를 따질 것 없다. 모든 종교가 우리의 그런 욕망을 미끼로 생겼고, 養生이나 長壽를 위한 운동이며, 의학까지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희귀하게 생사를 초월해 초연해진 인물들을 존경해 마지않는다. 13세에 왕이 되어 38세에 주변 6개국을 평정하고 중국을 통일한 始皇帝도 같은 인간이었다. 더구나 無所不爲의 權座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절대 긍정하고 싶지 않았으니, 삼신산으로 불사약을 구하러 童男童女를



병마용 박물관 제3관

보내고, 軍備를 배치한 지하궁전을 지으며, 丹藥을 복용하다가 겨우 선 살에 납중독으로 죽고 말았다. 이 어리석은 한 인간의 욕망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 받았다. 늙은 부모와 사랑하는 처자를 등지고 생가지 찢겨지듯이 갈라져서 평생 응어리진 한을 품은 채 죽어간 사람들……



병마용 박물관 동마차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진시황제와 병마용박물관이 없는 西安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알고 있으니 약간의 논리적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도대체 그 같은 폭군을 왜 이리도 선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리장성을 쌓고 焚書에 坑儒까지 한 군주가 아방궁을 짓고, 영생을 도모하려고 이런 지하궁전을 축조했으니, 당대 백성들의 삶은 지옥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西安 사람들에게는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돈줄이요 은인이다.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시간은 모든 것을 과거라는 장막으로 가리고 하나의 추억으로 새겨둘 뿐, 절절했던 喜怒哀樂은 묻어둔 채 무심히 흘러가고 만다. 이 시대의 물결 속에도 그런 사연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영리한 척하면서도 가장 우둔한 것이 인간인 듯 싶다. 이런 저런 생각에 골몰한데 차는 벌써 숙소에 닿았다. 

고려자기의 숨소리

이 정 옥 | 연구강좌 수강생

살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플 때,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자기실을 찾고는 한다. 그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고향과 같은 의지처가 된다. 그 어슴프레한 조명의 어우러짐이 좋고, 독특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분위기가 좋다. 그곳에서는 고려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들만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자주 찾게 되었다.

처음 고려자기실을 방문했던 날, 나는 이방인과 같은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다. 고려자기의 비취색과 자태가 왜 그리 찬탄을 받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보요 보물로 인정받는데 한 두 점이지만, 왜 나는 천년을 넘게 이어오는 감동과 찬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나의 무감동과 낮은 안목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박물관의 많은 전시실 중에서 고려자기실이 자꾸 발길을 끌었다. 보고 또 보고 싶었고 그냥 좋았다. 그래서 자꾸만 가게 되었나 보다.

고려자기실의 두 번째 방에서 그 자기를 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숨을 딱 멈추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색이 없는 것이 색임을 보여주었고, 꾸밈없는 선이 아름다움임을 일깨워 주었으며, 빙렬 하나 없는 깨끗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본보기로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음은 아직도 어린데 나이는 중년을 넘어 후반으로 가고 있으니 언제나 철없다 되뇌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며 확실한 표본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후 특설강좌에 등록하게 되었다. 첫 강의 시간, “여러분 저는 박물관에 나만의 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라는 어느 분의 느닷없는 질문을 받고 얼마나 놀라고 또한 기뻐는지. 박물관 강좌에 등록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로는 강의 시간 앞뒤에 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그와 가벼운 인사를 종종 나누었다. 仁宗(1109~1146) 長陵에서 출토된 청자

참외형 병의 얇디얇은 입 부분을 보고 또 본다. 종이도 아닌 것이 저렇게 얇게 되다니. 이것이 정말 흠인가 신기하고 신비스럽기도 하다. 빛은 이의 정열이 서려있는 예술혼이 느껴진다.

그리고 여러 강좌를 들으며 유물의 세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었다. 조금씩 답답한 마음을 벗고 조선백자질의 달항아리와도 만나고 분청사기의 상아빛에 제법 안정감도 느낀다. 여기저기 전시실을 돌아보다가 꼭 고려자기실의 그에게로 간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신을 닮아볼게요. 아니, 당신만큼 완벽하진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좋은 본보기를 눈으로 품을 수 있어 저는 정말 기쁩니다.’ 혹시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나의 고려자기가 창고 속으로 묻히는 건 아닐까? 전시 공간을 얻지 못해서 우리의 만남이 어렵게 될까 두렵다. 왜 사람들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작품을 소장하는지,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시공을 넘나들며 살아온 박물관의 유물들은 깊은 이야기와 철학을 간직하고 있다. 때로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같은 무심한 이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니 움직일 수 있는 네가 오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너에게 간직되어질 때만이 나는 최상의 보물이 되는 것이다.’ 그는 지고지순의 겸손으로 다가왔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고, 자신을 모두 보여주며 삶의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물로 여겨지기보다 나를 보물로 여기며 언제나 반겼던 것이다.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지극히 고귀한 그들에게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보물들아, 너희들이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하단다. 



인종 장릉 출토
청자참외형 병
(국보 94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개최 기념 특별전

한국 전통 매듭

— 중요무형문화재 매듭장 김희진의 예술

국립중앙박물관은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I에서 《한국 전통 매듭 - 균형과 질서의 미학》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2004.10.2-10.8)’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대회의 주제인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에 맞추어 특별히 마련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에 따른 경복궁 시대의 역사적인 마감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기능보유자 金禧鎭 선생이 평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및 직접 모은 유물과 자료 430점의 기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우리 매듭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랑하길 바라는 것이 기증자의 뜻이다.

전시 유물은 한국 전통 매듭과 기증 작품, 유물 등 총 200여점

이다. 이 중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였던

英王 李垕과 妃 李方子 여사가 소장했던 유품, 영조·정조의 어보, 국악기, 노리개, 주머니, 조선시대 남성용 장신구, 불교의식구, 의장용구 등을 장식했던 각종 전통 매듭 및 매듭 기법을 응용한 현대 창작품 등이 있다.





특히 보문사 소장 鞞垂飾과 引路王幡,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大鳳流蘇 등은 일반에 최초 공개되는 유물이다. 또한 김희진 선생의 창작품 <영원에서 영원으로>와 초대형 창작품 <시너지>는 3차원 공간에서 표현되는 매듭 자체의 입체적 예술성을 시도한 것으로 전통 매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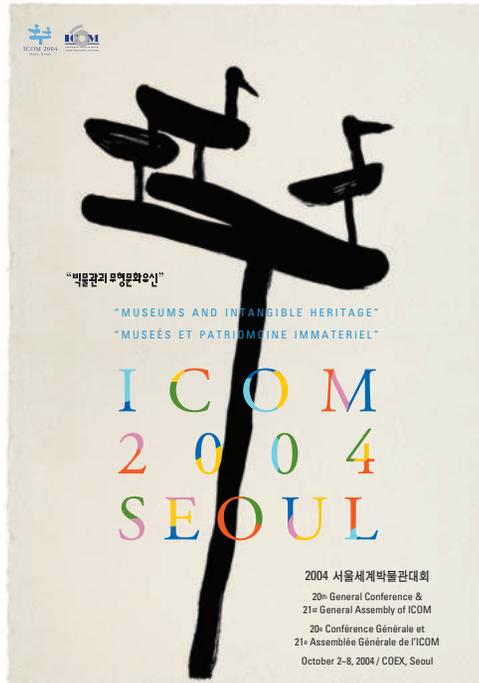
전시 주제는 <의장과 권위> <음악이 흐르는 풍경> <염원과 종교> <생활의 품격> <선비의 멋과 풍류> <여인의 꿈> <매듭장 김희진의 예술>로 총 7가지이다.

이번 전시는 '매듭'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궁중과 상류층이 누렸던 문화의 품격과 삶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김희진 선생의 다양한 현대 매듭 작품들은 전통 매듭 자체의 아름다움을 변형시키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전통 매듭에 깃든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현대 섬유 예술의 한 분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 02-2077-9484)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와 공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20차 서울세계박물관협회(ICOM) 총회의 주제는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기조연설, 공동주제 회의, 각 국제위원회별 회의, 유적지 관광 등, 기존 총회의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무형문화 공연이 포함되어 있다.

전야제 환영만찬이 열리는 10월 2일에는 봉산탈춤과 궁중복식발표회로 그 화려한 서막을 열 예정이다. 다음 날인 10월 3일, 본격적인 개회식과 기조연설, 그리고 만찬회로 이어진다. 이날의 잔치 마당에서는 수제천, 춘앵전, 판소리, 창작 국

악 및 무용이 사람들의 흥을 돋워 줄 것이다. 또한 10월 4일부터 6일까지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전통문화체험과 함께 만신굿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전과 오후 대회장 야외에서는 전통혼례시연과 강릉 단오제, 부채춤과 화관무 등의 군무도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폐회일인 10월 8일의 환송만찬에서는 경기민요 가락으로 작별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특히 이번 ICOM 총회 공연의 특징은 10월 3일 기조연설과 포럼 사이사이에 무형문화공연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기조 연설자로 선정된 이어령(전 문화부 초대장관, 문학평론가), 호르타(동티모르 외무장관, 1996년 평화노벨상 수상자), 바그리(알제리 출신의 History of ICOM의 공동저자)의



연설 후에 바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김홍남(국립민속박물관장), 마츠쇼노 마키오(일본국립민족학박물관장)의 두 번째 기조연설 후, 임돈희(동국대 교수), 리차드 커린(스미소니언 민속생활박물관장)의 연설 뒤에도 각각 무형문화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즉 이번 ICOM 총회는 연설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내용도 곁들여져 있어 참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함께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ICOM 한국위원회(02-735-7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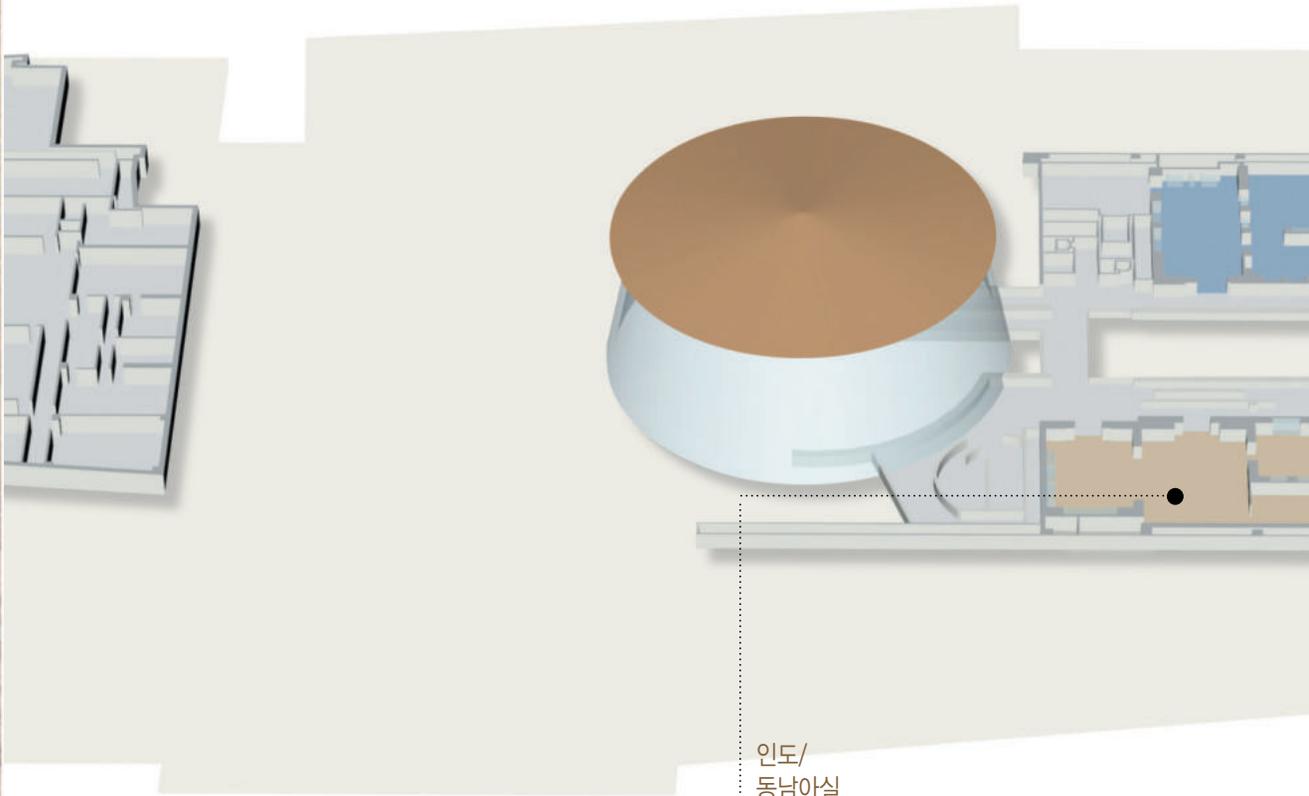


전시 3

F

미술Ⅱ관
동양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명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미술Ⅱ관은 전시 2층의 미술Ⅰ관과 연계하여 중층으로 이루어졌다. 동양관은 주변국가의 유물을 전시하여 상호 역사적 관련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아시아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 잡고자 하였다.



인도/
동남아실
37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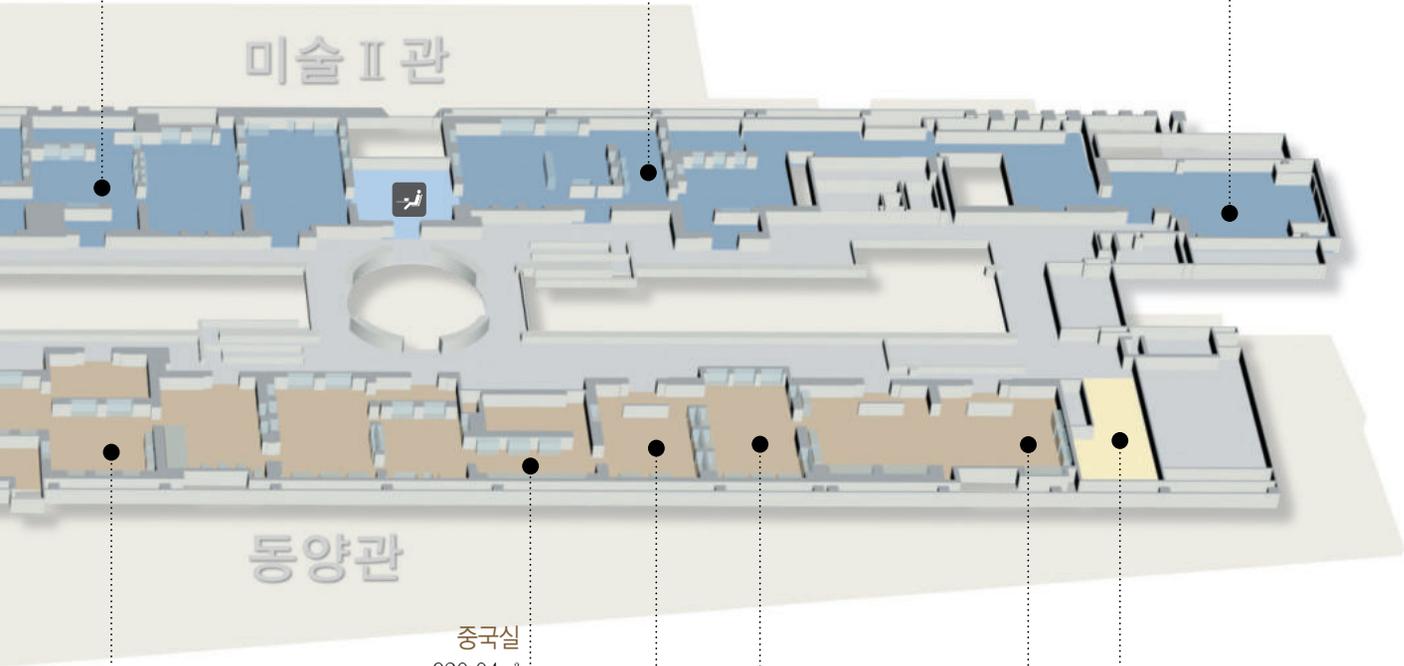
도자공예실
1,179.09㎡
273점



금속공예실
528.66㎡
418점



불교조각실
872.52㎡
60점



미술 I 관

동양관

중국실
920.04㎡
170여점



낙랑실
약 180㎡
152점



신안실
약 80㎡
99점



카페테리아
237.54㎡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일본실
454.74㎡

중앙아시아실
584.43㎡
216점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俞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晒玉
 千信一 · 崔永道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평생·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회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상임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朴容允 한국박물관회 이사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버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 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등을 구입 기증했다.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 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2004년 ICOM서울총회 자원봉사

바로잡습니다

6호 23면 2단 10행 末角을 抹角으로 바로잡습니다.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미리 미리 보고 또 보아야
예뻐지는 걸까? (水)

옛여인들의 마음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발 아래로
가을이 밝히고 있네요..... (愛)

세월은 달라도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는 향기롭다.
갈바람 가시기 전
누구에게라도
몇 줄에 마음을 담아 부쳐봄은 어떨지. (선)

무더운 여름, 옛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다보니
어느덧 가을 바람 소슬하게 불어오고
그 마음 내 마음에 와 닿았네.. (리)

수백년을 땅속에서 버려낸
옛 편지는,
상처도 오래 간직하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음. (진)

돌확 속 연보라 연꽃
개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진다.
계절이 뒷걸음 치는 징후.
익숙한 것과의 작별은
언제나 애잔하다.
그것이 사무친 더위였을 지라도. (河)

너무 가까워 잘 안보였던 이들에게
마음 한 줄 보내고 싶어집니다
이 가을에 (정)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7호

발행일 | 2004년 9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상옥

기획 | 신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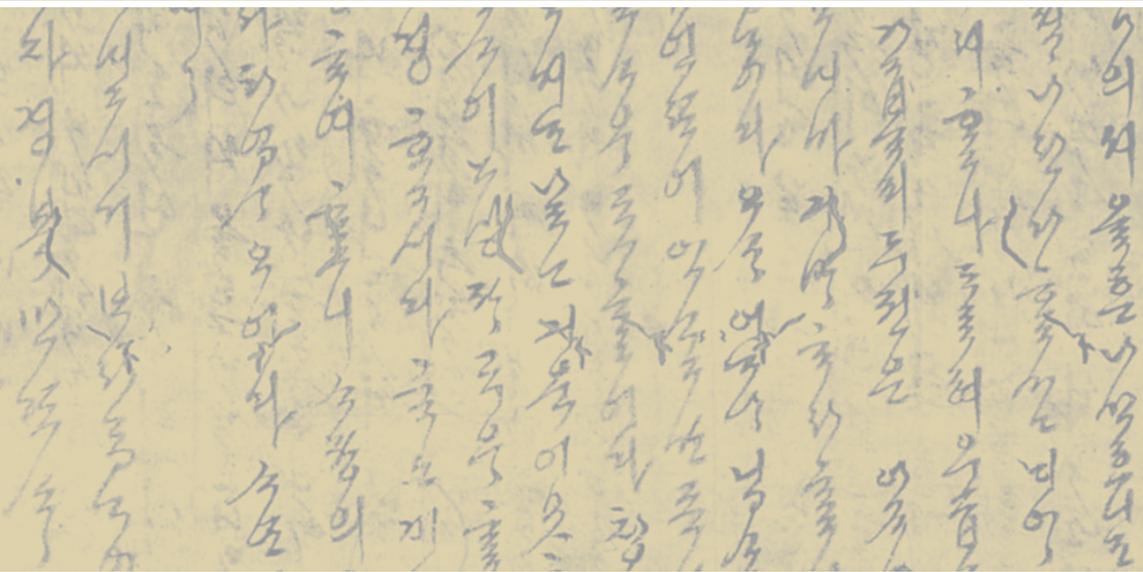
편집위원 | 서미선 정미희 정혜리 조애경 진수옥 하영남

진행 |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편지봉투는 1829년 秋史 金正喜가 아내 李氏에게 보낸 것으로

위쪽의 봉인에 이어 本家 卽傳 箕冊 上狀을 한글로 쓰고

아래쪽에는 元春 근봉이라고 하였다.

원춘은 추사의 자인데 높이 솟은 元자안에 春자를 넣은 글씨가 힘차면서도 멋스럽다.

편지글은 1791년 추사의 어머니 俞氏가 남편 金龜敬에게 보낸 것이다.

흘러 쓴 궁체로 단아하고 활달하다.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Sejong-no 1,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